

###

토론토릴아시안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는 기대되는 한국 영화들

토론토, 2013년 10월 8일 — National Bank가 후원하는 토론토 릴 아시안 국제영화제 (The Toronto Reel Asi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는 매해 가장 기대되는 한국 영화들을 다수 상영한다.

내가 살인범이다 (정병길 감독 참석, 한국 2012, 토론토 첫 상영)

15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자서전을 통해 자백한다. 미남형 외모와 수려한 말솜씨의 범인은 언론의 관심을 받는다. 최형사는 변화된 범인의 모습을 믿지 않고 어떻게든 잡아넣으려고 한다. 법의 허점을 기반으로 한 단순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전달력과 빠른 액션신이 돋보이는 영화이다. 정병길 감독은 액션배우를 꿈꾸는 스타트맨들에 대한 영화인 *우린 액션배우다*(2008)라는 액션 다큐멘터리로 데뷔했다. *내가 살인범이다*는 정 감독의 첫 장편영화이다.

내가 살인범이다 상영시간: 토요일, 11월 9일, 오후 9시 45분 | *The Royal*

남자사용설명서 (이원석 감독, 한국 2013, 토론토 첫 상영)

최보나(이세영)는 매일 영화 촬영장에서 성차별적인 직장상사의 눈치를 보며 험령한 후드티에 감춰서 산다. 어느날 남자사용설명서 비디오를 손에 쥐게된 그녀는 뜻밖에도 많은 남자들로부터 애정공세를 받게 된다. 이 영화는 다양한 시각적 자극과 뛰어난 사운드 트랙으로 성대결 영화의 상투성을 뛰어넘는다. *남자사용설명서*는 2013년 우디네 극동영화제, 뉴욕 아시아 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에서 관객상을 수상했다.

남자사용설명서 상영 시간: 목요일, 11월 7일, 오후 8시 30분 | *AGO Jackman Hall*

캐나다 단편 장편들 역시 릴 아시안 국제영화제의 중요한 일환이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한국계 캐나다 교포 전소진 감독, 정의용 감독 등의 작품들을 상영할 예정이다. 주요 작품들은 아래와 같다:

평양에서 온 편지 (캐나다 2012)

*평양에서 온 편지*는 한국계 캐나다인 영화감독 제이슨 리가 북한을 방문해 친척의 흔적을 더듬어 가는 내용을 담는다. *평양에서 온 편지*는 Paper Trace 단편 작품들 중 하나로 상영되며, 제이슨 리 감독이 참석할 예정이다.

PAPER TRACE 상영시간: 수요일, 11월 6일, 오후 1시 | *AGO Jackman Hall*

언론문의

버지니아 켈리(Virginia Kelly), V Kelly & Associates – 416-466-9799 – info@vkpr.ca
언론정보 및 사진, 보도자료, 인증 등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reelasian.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0-